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의원의 역할

박영홍 |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실장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는 지방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분권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고,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의원 개인 및 상임위원회별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집행기관의 지방분권 추진상황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에도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지방분권이 진전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는 이러한 집행기관을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입안·수립 및 실시 과정에도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는 지금까지보다는 더욱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분권이란 정치적·행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의회는 이러한 두 영역의 관점에서 지방분권을 요구할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의원 개인 및 상임위별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중앙정부에서 처리하던 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지방의원들은 이에 대비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지방의원은 1인당 1분야 이상 전문가가 됨으로써 지방행정전반에 걸쳐 전문가의 입장에서 감시와 견제는 물론 해당 분야의 지방분권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집행기관의 지방분권 추진상황에 대한 감시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권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높은 편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공무원 들은 오히려 지방분권에 대한 소극적 또는 부정적 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방분권이 진전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나 사업만 늘어날 뿐 그에 상응한 재원이나 인력의 확충이라는 후속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넷째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이 진전되면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가운데 상당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그런데 중앙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국회에서 수행하는 바, 지방분권 시대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므로 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지방분권이 진전되면 국회의 상당부분의 권한이나 기능이 지방의회로 이양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간에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몇 가지 방안으로 우선 지방의원 개인별로는 최소한도 1분야 이상의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고, 상임위별로는 집행기관의 실국별 지방분권 관

련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지방의회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상임위별로 중앙정부로부터 이양을 받아야 할 권한과 사무에 대한 분석 검토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권한과 사무의 이양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확대 차원에서 조례의 제정·개정과 항상 연계가 되는 방향으로 지방의원들은 입법 마인드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상임위별로 해당 분야의 조례연구 및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